

해발 800m 대관령 한우연구소 '겨울 채비 분주'

- 겨우내 소 풀사료 저장, 축사시설 점검 중요
- 연구용 한우 940여 두에 급여할 조사료 생산에 박차

해발 800m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자리 잡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가 한우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이다.

한우연구소가 사용하고 있는 한우 150여 두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방목 생활을 끝내고 10월 하순 축사로 돌아와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우가 내년 3월까지 5개월 이상의 긴 겨울을 지내려면, 옥수수 담근떡이(사일리지) 700여 톤과 마른풀(건초) 1,000여 톤 이상이 필요하다.

옥수수 담근떡이는 배합사료에 들어 있는 에너지와 단백질의 약 80% 정도(마른 재료 기준)를 대체할 정도로 영양 가치가 높다. 또한,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 필수적인 섬유질이 풍부하다.

18헥타르 밭에 5월부터 씨를 뿌리고 9월에 수확할 때, 3cm 내외 크기로 잘라 트랜치 사일로에 저장하면 발효를 거쳐 담근떡이가 완성된다.

마른풀은 66헥타르 초지에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생산한다. 풀을 베어 3~4일 뒤집어 주면서 자연건조 시킨 후, 300kg 내외 원형으로 말아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 동안 먹이로 쓴다.

겨우내 한우가 머무는 축사도 철저히 관리한다. 축사 내부는 깨끗이 청소

하고, 바닥에 톱밥을 새로 깔아 가축의 체온 유지를 돕는다. 눈과 바람을 막아줄 시설도 보강한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보온 등과 깨끗한 깔짚을 깔아주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축사 내부 습기가 잘 배출되지 않을 경우, 12개월령 미만 육성우에서 곰팡이성 피부병인 버짐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해가 뜨면 우사 내 송풍기를 가동해 천정의 결로가 사라지도록 수시로 환기한다.

비육우는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요석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급수기가 얼지 않도록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히터 등 전기 시설을 검사해 급수기 동파를 방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김동훈 소장은 “대관령은 다른 지역보다 겨울이 한 달가량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겨울 동안 소가 먹을 풀사료 저장과 축사시설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올해 여름은 무덥고 기상변화가 심해 옥수수 수확량이 적을까 걱정했는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한우 사료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붙임. 한우연구소 겨울나기용 풀사료 생산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책임자	소 장	김동훈 (033-330-0601)
		담당자	연구사	장선식 (033-330-0693)

겨울 준비를 위한 풀사료 생산 계획

1. 초지와 사료작물 재배 면적

구 분	총 면적 (ha)	관리면적 (ha)*	목구수	용 도	비 고
풀사료 총면적	282.8	267.8	35	자급사료 생산	
○ 초 지 면 적	265.1	250.1	29		
- 방목초지	183.8	183.8	14	한우방목	
- 채 초 지	81.3	66.3	15	건초생산	
○ 옥수수 재배면적	17.7	17.7	6	사일리지Silage	옥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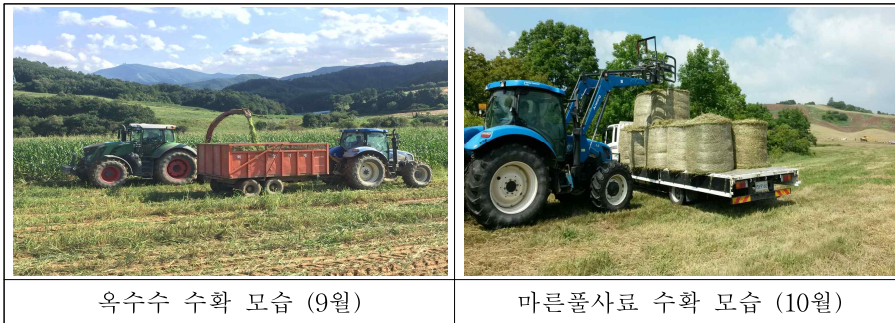
※ 임야, 잡관목, 도로, 등 관리 제외 면적 86ha

※ 초지 기반조성 및 잡관목 제거 등 관리면적 확대 추진: 10ha

2. 풀사료 생산계획(소요량/생산량) ※ 소요량은 한우 750마리 기준

구 분	사육 마릿수	건 초			사일리지Silage		
		일당 (kg)	기간 (일)	총량 (톤)	일당 (kg)	기간 (일)	총량 (톤)
성 우	750	4.0	180	540	10.0	180	1,350
육성우	160	3.0	180	86.4			
소요량				626.4			1,350
생산량				323			654
비율(%)				51.6			48.4

그림 자료



옥수수 수확 모습 (9월)

마른풀사료 수확 모습 (10월)